제2장

송대 유학 연구

단윤진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9년 한국유교 레포트-한국 학계의 유교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에서 출간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위의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 후보지를 살펴본 결과 2019년 중국 송대 성리학 관련 논문은 총21편으로, 2018년 46편, 2017년 66편보다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동안 계속 꾸준히 있어 왔던 학위논문이 2019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먼저 21편의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기현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이체기용(理體氣用)에서 이승기기(理乘氣機)에로-	동양철학연구 97권 0호	동양철학연구회
2	김기현	송명 심성일체(心性一體) 노선에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	한국철학논집 63권 0호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우형	송학(宋學)을 철학화하기-후쿠자와 유키치의 유교관과 사상기저	인문과학 116권 0호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4	김철호	악의 리는 없다-정호의 리유선악에 대한 주희의 해석-	윤리연구 127권 0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5	김철호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정호의 선악개천리(善惡皆天理)에 대한 주희의 해석-	동양철학연구 100권 0호	동양철학연구회
6	김한신	남송대(南宋代) 성리학적(性理學的) 사후세계관(死後世界觀)의 형성	중국사연구 119권 0호	중국사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7	박준철	주희(朱熹)의 도덕인식론	윤리교육연구 53권 0호	한국윤리교육학회
8	서정화	『정몽』「삼양」편에 보이는 장재의 천지관 및 천체운행 논의의 이해와 그에 대한 왕부지의 해석-천체력 기년원리 궁구 과정의 첫 번째 발걸음[2/3]-	유학연구 47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소현성	장식(張栻)의 「태극해의(太極解義)」 정본(定本) 연구(硏究)	중국학보 90권 0호	한국중국학회
10	신두환	주희의 산수시와 강호가도(江湖歌道)의 미의식	연민학지 31권 0호	연민학회
11	안재호	육구연의 "실학(實學)" 체계 천석(淺析)(II)-"역간(易簡)" 공부론	중국학보 87권 0호	한국중국학회
12	오진솔	형벌과 법제에 대한 주자학의 인식 연구-주희(朱熹)와 채침(蔡沈)의 『서경(書經)』 해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49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이치억	성리학에서 기질과 기질변화의 의미-주렴계와 주자의 기질변화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48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4	정병석 김덕화	정이천(程伊川)의 『주역(周易)』 해석에 보이는 괘재(卦才)	중국학보 89권 0호	한국중국학회
15	정종모	송명유학의 도통론에서 안회의 지위와 의미-정명도의 도통론과 그 굴절을 중심으로-	陽明學Vol.0 No.54	한국양명학회
16	조희영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의 『운해훈민정음(韻解訓民正音)』에 담긴 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현대적 의미-강절역학(康節易學)을 통한 분석으로 국어학계와 다른 주장을 제시함	대동문화연구 108권 0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7	주광호	주자철학에서 태극론과 이기론의 맥락적 차이	退溪學報 Vol.146 No.	퇴계학연구원
18	주광호	朱子의 격물공부-대상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	동양철학Vol.0 No.51	한국동양철학회
19	주광호	중화신설, 방법에서 목적으로	동양철학Vol.0 No.52	한국동양철학회
20	주광호	주자의 공부론, '본체 깨닫기'에서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 맺기'로	哲學硏究 Vol.151 No.-	대한철학회
21	채진풍	주자(朱子)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의 이기(理氣) 문제와 조선 유학자의 해석	退溪學報 Vol.145 No.-	퇴계학연구원

본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는데, 인물에 관한 논문은 총18편이다.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강절, 1011-1077), 주돈이(염계, 1017-1073), 장재(횡거, 1020-1077), 정호(명도, 1032-1085), 정이(이천, 1033-1107)와 남송시대의 주희(회암, 1130-1200), 장식(남헌, 1133-1180), 육구연(상산, 1139-1192), 채침(구봉, 1167-1230)까지 총 9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여 1)경학, 2)역학, 3)심성론, 4)이기론, 5)수양론, 6)인식론, 7)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분석하고 비평 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2. 인물별 분류

인물에 관한 논문은 총 21편의 논문 중 18편으로 북송 시대에는 소옹 1편, 주렴계 1편, 장재 1편, 정호 3편, 정이 1편의 일반 논문이 있으며, 남송 시대에는 주희 8편, 장식 1편, 육구연 1편, 채침 1편의 논문이 있다. 주렴계와 채침은 주희와의 관련 논문이다. 그리고 학위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1) 소옹(강절, 1011-1077),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희영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의 『운해훈민정음(韻解訓民正音)』에 담긴 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현대적 의미-강절역학(康節易學)을 통한 분석으로 국어학계와 다른 주장을 제시함	대동문화연구 108권 0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년 소옹에 관한 논문은 조희영의 논문 1편이다. 소옹은 2018년에는 박사논문을 포함하여 4편이 있었고, 2017년에는 2편, 2016년에는 없었으나 2015년에는 2편, 2014년에는 그에 관한 논문이 없었다.

2) 주돈이(염계, 1017-1073),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치억	성리학에서 기질과 기질변화의 의미-주렴계와 주자의 기질변화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48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년 주렴계에 관한 논문도 이치억의 논문 1편이다. 그동안 주

돈이에 대해 발표된 논문은 2018년에는 3편, 2017년에는 4편, 2015년, 2016년에는 논문이 없었고 2014년에는 3편의 논문이 있다.

3) 장재(횡거, 1020-1077),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정화	『정몽』「삼양」편에 보이는 장재의 천지관 및 천체운행 논의의 이해와 그에 대한 왕부지의 해석-천체력 기년원리 궁구 과정의 첫 번째 발걸음[2/3]	유학연구 47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년 장횡거의 논문은 서정화 논문이 1편이 있다. 2018년에는 그에 관한 논문이 없었고 2017년에는 2편, 2016년에는 없었고. 2015년은 1편, 2014년에는 3편의 논문이 있었다.

4) 정호(명도, 1032-1085), 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철호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정호의 선악개천리(善惡皆天理)에 대한 주희의 해석	동양철학연구 100권 0호	동양철학연구회
2	김철호	악의 리는 없다-정호의 리유선악에 대한 주희의 해석-	윤리연구 127권 0	한국윤리학회 (구 한국국민윤리학회)
3	정종모	송명유학의 도통론에서 안회의 지위와 의미-정명도의 도통론과 그 굴절을 중심으로-	陽明學Vol.0 No.54	한국양명학회

2019년도 정명도에 대한 논문은 김철호의 논문 2편과 정종모의 논문 1편으로 총 3편이 있다. 2018년에는 없었고 2017년은 이정(二程)에 관한 논문으로 2편, 2016년 1편, 2015년 2편, 2014년 3편의 논문이 있다.

5) 정이(이천, 1033-1107, 일반논문 1편, 학위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병석 김덕화	정이천(程伊川)의 『주역(周易)』 해석에 보이는 괘재(卦才)	중국학보 89권 0호	한국중국학회

2019년 정이천에 대한 논문은 1편이 있다. 2018년에는 3편의 논문이 있었고 2017년은 이정(二程)에 관한 논문으로 2편, 2016년에 1편, 2015년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총 2편, 2014년에는 1편도 없었다.

6) 주희(회암, 1130-1200), 8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준철	주희(朱熹)의 도덕인식론	윤리교육연구 53권 0호	한국윤리교육학회
2	신두환	주희의 산수시와 강호가도(江湖歌道)의 미의식	연민학지 31권 0호	연민학회
3	오진솔	형벌과 법제에 대한 주자학의 인식 연구-주희(朱熹)와 채침(蔡沈)의 『서경(書經)』 해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49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이치억	성리학에서 기질과 기질변화의 의미-주렴계와 주자의 기질변화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48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주광호	주자철학에서 태극론과 이기론의 맥락적 차이	退溪學報 Vol.146 No.	퇴계학연구원
6	주광호	朱子의 격물공부-대상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	동양철학Vol.0 No.51	한국동양철학회
7	주광호	주자의 공부론, '본체 깨닫기'에서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 맺기'로	哲學硏究 Vol.151 No.-	대한철학회
8	채진풍	주자(朱子)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의 이기(理氣) 문제와 조선 유학자의 해석	退溪學報 Vol.145 No.-	퇴계학연구원

2019년 주희에 대한 논문은 총 8편이다. 특히 주광호는 3편의 논문을 썼고 그 외에 각각 5명의 학자가 주희에 관한 논문을 썼지만 예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은 2018년에는 총 27편, 2017년에는 44편, 2016년에는 32편, 2015년에는 33편, 2014년에는 36편이었다. 과거 주희에 대한 논문은 송대 성리학 논문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았다. 주제도 다양 하여 경학, 역학,경세론, 이기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에 골고루 분포 되어 있었다. 주희와의 다른 대상과의 비교 논문도 많이 보였는데 불교와 주희의 비교, 왕양명과의 비교, 조선유학자와의 비교 뿐 만아니라 서구의 이원론과 정치철학에서의 비교도 있었다. 그 뿐 만 아니라 주희에 대한 매우 다양한 주제의 신선한 논문들이 게재되어 새로운 각도에서 주희를 조망해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2019년도에는 아쉽게도 주희에 관한 논문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일단 양이 현저히 적어졌고 내용도 그 전년도들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다.

7) 장식(남헌, 1133-1180),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소현성	장식(張栻)의 「태극해의(太極解義)」 정본(定本) 연구(研究)	중국학보 90권 0호	한국중국학회

2019년 장식에 관한 논문은 소현성의 논문이 1편이 있다. 2018년에는 1편이 있고 2017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이에는 장식에 관한 논문이 보이지 않는다.

8) 육구연(상산, 1139-1192), 1편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안재호	육구연의 "실학(實學)" 체계 천석(淺析)(II) – "역간(易簡)" 공부론	중국학보 87권 0호	한국중국학회

2019년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안재호의 논문이 1편 있다. 2018년에는 2편의 논문이 있고, 2017년에는 1편, 2016년에는 2편, 2015년, 2014년에는 논문이 보이지 않는다.

9) 채침(구봉, 1167-1230), 1편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오진솔	형벌과 법제에 대한 주자학의 인식 연구 – 주희(朱熹)와 채침(蔡沈)의 『서경(書經)』 해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9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년 채침에 대한 논문은 오진솔의 논문이 1편 있다. 2018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채침에 관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6년에 채원정에 관한 논문은 1편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역학, 3)심성론, 4)이기론, 5)수양론, 6)인식론, 7)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인물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3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21편이다.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1편, 역학 2편, 심성론 3편, 이기론 3편, 수양론 2편, 인식론 5편, 기타 5편이다.

논문들이 각각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 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렵고 또한 주제별로 중복 되는 부분도 많아서 한 가지 범주로 넣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있다.

1) 경학(1편), 『서경(書經)』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오진솔	형벌과 법제에 대한 주자학의 인식 연구-주희(朱熹)와 채침(蔡沈)의 『서경(書經)』 해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9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그동안 경학 논문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 다양한 논문이 있었는데 2019년 경학 논문으로는 『서경(書經)』에 관한 논문 1편이다. 오진솔은 「형벌과 법제에 대한 주자학의 인식 연구-주희(朱熹)와 채침(蔡沈)의 『서경(書經)』 해석을 중심으로-」에서 주희(朱熹)와 채침(蔡沈)의 『서경(書經)』 해석을 중심으로 형벌과 법제에 대한 주자학의 인식 연구를 하였다. 2018년도 경학연구는 5편이고, 2017년에는 10편, 2016년에는 6편, 2015년에는 5편, 2014년에는 7편이었다.

2) 역학(2편)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희영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의 『운해훈민정음(韻解訓民正音)』에 담긴 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현대적 의미–강절역학(康節易學)을 통한 분석으로 국어학계와 다른 주장을 제시함	대동문화연구 108권 0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	정병석 김덕화	정이천(程伊川)의 『주역(周易)』 해석에 보이는 괘재(卦才)	중국학보 89권 0호	한국중국학회

역학에 관한 논문으로는 조희영의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의 『운해훈민정음(韻解訓民正音)』에 담긴 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현대적 의미–강절역학(康節易學)을 통한 분석으로 국어학계와 다른 주장을 제시함」과 정병석, 김덕화의 「정이천(程伊川)의 『주역(周易)』 해석에 보이는 괘재(卦才)」 등의 2편의 논문이 있다. 소강절의 상수역학과 정이전의 의리역학이 고루 연구 되었다. 2018년 역학에 관한 연구는 4편이 있고 2017년에는 1편, 2016년에는 보이지 않고 2015년 2편, 2014년에는 1편이 있다.

3) 심성론(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기현	송명 심성일체(心性一體) 노선에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	한국철학논집 63권 0호	한국철학사 연구회
2	주광호	중화신설, 방법에서 목적으로	동양철학Vol.0 No.52	한국동양철학회
3	채진풍	주자(朱子)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의 이기(理氣) 문제와 조선 유학자의 해석	退溪學報 Vol.145 No. –	퇴계학연구원

심성론에 관한 논문은 김기현의 「송명 심성일체(心性一體) 노선에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 주광호 「중화신설, 방법에서 목적으로」와 채진풍 「주자(朱子)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의 이기(理氣) 문제와 조선 유학자의 해석」 등 3편의 논문이 있다. 2018년에는 이기·심성론으로 12편이 있으며, 2017년에는 심성론 논문으로 8편이 있다. 2016년, 2015년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윤리·수양론에 포함시켰고(2016년 17편, 2015년 13편) 2014년에는 이기·심성론으로 12편이 있다.

4) 이기론(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기현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이체기용(理體氣用)에서 이승기기(理乘氣機)에로-	동양철학연구 97권 0호	동양철학연구회
2	소현성	장식(張栻)의 「태극해의(太極解義)」 정본(定本) 연구(硏究)	중국학보 90권 0호	한국중국학회
3	주광호	주자철학에서 태극론과 이기론의 맥락적 차이	退溪學報 Vol.146 No.	퇴계학연구원
4	김철호	악의 리는 없다-정호의 리유선악에 대한 주희의 해석-	윤리연구 127권 0	한국윤리학회 (구 한국국민윤리학회)

이기론에 관한 논문은 김기현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이체기용(理體氣用)에서 이승기기(理乘氣機)에로-」, 소현성 「장식(張栻)의 『태극해의(太極解義)』 정본(定本) 연구(硏究), 주광호 주자철학에서 태극론과 이기론의 맥락적 차이」, 김철호 「악의 리는 없다-정호의 리유선악에 대한 주희의 해석-」 등 4편의 논문이 있다. 2018년에는 이기·심성론으로 12편이 있다. 2017년에는 이기론으로 3편, 2016년도 3편, 2015년 4편, 2014년에는 이기·심성론으로 12편이 있다.

5) 수양론(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재호	육구연의 “실학(實學)” 체계 천석(淺析)(II)-“역간(易簡)” 공부론	중국학보 87권 0호	한국중국학회
2	이치억	성리학에서 기질과 기질변화의 의미-주렴계와 주자의 기질변화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48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주광호	주자의 공부론, ‘본체 깨닫기'에서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 맺기'로	哲學硏究 Vol.151 No.-	대한철학회

수양론에 관한 논문은 안재호의 「육구연의 “실학(實學)” 체계 천석(淺析)(Ⅱ)-“역간(易簡)” 공부론」, 이치억의 「성리학에서 기질과 기질변화의 의미-주렴계와 주자의 기질변화론을 중심으로-」, 주광호의 「주자의 공부론, ‘본체 깨닫기’에서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 맺기’로」 등 3편이 있다. 2018년에는 수양론 10편, 2017년에는 윤리·수양론으로 22편, 2016년에는 윤리·수양론으로 17편, 2015년 윤리·수양론 13편, 2014년 윤리·수양론 16편이 있다.

6) 인식론(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철호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정호의 선악개천리(善惡皆天理)에 대한 주희의 해석-	동양철학연구 100권 0호	동양철학연구회
2	박준철	주희(朱熹)의 도덕인식론	윤리교육연구 53권 0호	한국윤리교육학회
3	주광호	朱子의 격물공부-대상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	동양철학Vol.0 No.51	한국동양철학회

인식론에 관한 논문은 김철호의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정호의 선악개천리(善惡皆天理)에 대한 주희의 해석-」, 박준철의 「주희(朱熹)의 도덕인식론」, 그리고 주광호의 「朱子의 격물공부-대상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 등 총 3편의 논문이 있다. 인식론에 관한 논문은 2018년에는 3편, 2017년 2편, 2016년 3편, 2015년 7편이 있으며 2014년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7) 기타(5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송학(宋學)을 철학화하기-후쿠자와 유키치의 유교관과 사상기저	인문과학 116권 0호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	김한신	남송대(南宋代) 성리학적(性理學的) 사후세계관(死後世界觀)의 형성	중국사연구 119권 0호	중국사학회
3	신두환	주희의 산수시와 강호가도(江湖歌道)의 미의식	연민학지 31권 0호	연민학회
4	서정화	『정몽』「삼양」편에 보이는 장재의 천지관 및 천체운행 논의의 이해와 그에 대한 왕부지의 해석-천체력 기년원리 궁구 과정의 첫 번째 발걸음[2/3]-	유학연구 47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정종모	송명유학의 도통론에서 안회의 지위와 의미-정명도의 도통론과 그 굴절을 중심으로-	陽明學Vol.0 No.54	한국양명학회

기타 논문은 김우형의 「송학(宋學)을 철학화하기-후쿠자와 유키치의 유교관과 사상기저」, 김한신의 「남송대(南宋代) 성리학적(性理學的) 사후세계관(死後世界觀)의 형성」, 신두환의 「주희의 산수시와 강호가도(江湖歌道)의 미의식」, 서정화의 「『정몽』「삼양」편에 보이는 장재의 천지관 및 천체운행 논의의 이해와 그에 대한 왕부지의 해석-천체력 기년원리 궁구 과정의 첫 번째 발걸음[2/3]-」, 정종모의 「송명유학의 도통론에서 안회의 지위와 의미-정명도의 도통론과 그 굴절을 중심으로-」 등 모두 5편의 논문이 있다. 2018년의 기타 논문은 11편이고 2017년도 역시 11편, 그리고 2016년, 2015년, 2014년은 각각 5편씩의 기타 논문이 있다.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2019년에는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이 총 21편 있다. 그 중 주광호, 김기현, 김철호의 논문을 살펴 보았다.

주광호는 2019년 주자 관련 논문을 4편이나 썼다. 「주자철학에서 태극론과 이기론의 맥락적 차이」, 「朱子의 격물공부-대상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 「중화신설, 방법에서 목적으로」, 「주자의 공부론, '본체 깨닫기'에서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 맺기'로」 등 이다.

그의 논문을 살펴보자면 먼저 「주자철학에서 태극론과 이기론의 맥락적 차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글의 목적은 주자 태극론과 이기론의 동이점을 분석하여, 두 사유체계를 동일시함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구명하는 것이다.주자의 제자들과 현대 연구자들은 리와 태극을 동일시하고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기동정·이기선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태극론은 전체 차원의 존재론이자 본체론이고 이기론은 주로 개별적 차원에서의 존재론이자 본체론이다. 여기서 두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치적 연속의 문제다. 이와 기 사이에는 선과 악의 대비가 가능하지만 태극과 음양에서는 불가하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태극론은 존재 전체에 대한 담론이고 이기론은 주로 주체의 도덕적 본성과 존재적 처지 간의 갈등을 다루는 도덕심리학이기 때문이다.

또 「朱子의 격물공부-대상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에서는 朱子 공부의 목적을 이상적 인격의 완성이라고 설정할 때 격물공부 즉 외재적 대상에 대한 인식적 탐구가 어떻게 인격의 완성 혹은 도덕적 훈련과 관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주자가 생각하

는 공부의 목적이 결코 내면의 도덕성을 확인하고 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자는 『大學章句』에서 明德을 밝히는 일이 공부의 목적이라고 했다. 明德은 주체〔心〕의 능력으로서 그 내용은 '具衆理, 應萬事' 즉 모든 이치를 갖추고서 모든 대상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자는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성숙한 인격으로 대상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지 내면의 도덕성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주자는 공부의 목적을 성숙한 인격으로 대상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나의 인격 역시 성숙해진다는 말이다. 때문에 대상에 대한 탐구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관심의 표현이 된다. 이렇게 주자의 격물은 해석학적 관계맺음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리고 「중화신설, 방법에서 목적으로」에서 중화신설 시기 주자는 대상과의 일상적 만남을 뒤로 한 채 내면의 도덕적 본성을 확인하고 확보하려는 태도를 일관되게 비판한다. 일상에서 벗어난 관념화 이론화를 거부한 것이다. 이런 모습은 신설 이전 소위 대본(大本)이나 본심(本心) 혹은 구인(求仁)을 강조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도남학의 미발체인(未發體認)과 호상학의 찰식단예(察識端倪)는 감정의 발출 이전이냐 이후냐 라는 공부 방법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화신설 이후 주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다. 체인이든 찰식이든 그 목적이 '도덕적 본성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극복되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설 이후 도덕적 본성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것은 올바른 윤리적 행동을 위한 전제요 조건이지 그 자체 공부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다. 격물이든 함양이든 주자의 공부

론은 대상과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윤리적 선택과 인격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해석학적 성격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주자의 공부론, '본체 깨닫기'에서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 맺기'로」에서는 주자 공부론의 주요 항목인 격물치지를 대상에 대한 인식적 탐구라고 이해할 때 그것이 인격적 고양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주자의 격물을 윤리적 사태에 대한 이해로 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격물과 함양을 모두 내면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혹은 확보로 해석한다.그러나 주자는 윤리적 사태 이외의 존재 될 수 없다. 주자의 격물은 『대학장구』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성숙한 인격으로 대상과 만나 원융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주체의 자세 가다듬기가 주자의 함양공부다. 이렇게 주자의 공부론은 철저하게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맥락으로 독해할 수 있다.

주광호는 주자철학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많은 연구를 하였다.그는 주자철학에서 태극론과 이기론의 맥락적 차이를 자치적 연속의 문제라고 말한다. 朱子의 격물공부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을 가지고 주자의 공부론을 연구했다. 또 공부론에서 '본체 깨닫기'에서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 맺기'로 주자의 공부론을 확장 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화신설을 방법에서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하였다. 그와 같은 연구는 주자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김기현은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이체기용(理體氣用)에서 이승기기(理乘氣機)에로」, 「송명 심성일체(心性一體) 노선에서 사단과 칠정

의 관계」 등 2편의 논문을 썼다.

먼저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이체기용(理體氣用)에서 이승기기(理乘氣機)에로」에서 이 글은 성리학(주자학)이 의거하고 있는 형이상학이 동아시아의 형이상학 역사에서 기존의 것을 대체하여 새롭게 건립된 것이었음을 논의한 것이다. 주희에 의해 정립된 이 새로운 형이상학은 "태극자 본연지묘야; 동정자 소승지기야(太極者, 本然之妙也; 動靜者, 所乘之機也." 16글자를 근간(根幹)으로 한다. 이 언명의 실질적 내용은 리(理)와 기(氣)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성리학의 정립자인 주희의 관점에서 볼 때, 형이상자인 리와 형이하자인 기의 관계에 대해 기존 이학은 이체기용(理體氣用)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체기용 사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 주희가 반복하여 말한 것은 '형이상자와 형이하자는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분명한 사실은 주희가 새롭게 제시한 대안인 이승기기(理乘氣機) 사상이 형이상학 면에서 기존의 이체기용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노선을 달리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측은지심 등의 본심(本心)을 사례로 비교 고찰하는 가운데 주희가 문제시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해낸다. 첫째, 음양 오행의 부단한 운동 변화 과정인 현실 세계를 호상학자들이나 육구연처럼 형이상자인 리의 직접적인 운동 변화로만 설명하는 것은 '역유태극(易有太極)'명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역』의 도덕형이상학에 맞지 않는다. 도덕, 즉 선은 운동 변화 과정의 산물이다. 선의 창출은 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리와 기의 공조(共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희의 도덕형이상학 입장이다. 둘째, 주희가 볼 때, 이체기용 노선의 이학에 의한다면 공부란 선천적 선심(善心)인 본심이 발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이전에 평상시에 해 두어야 하는 공부가 없다. 주희에 의하면, 선천

적 선심을 확충하는 것보다 더 주력해야 하는 공부는 평상시에 함양하는 공부이다. 노선 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는 신유학인 성리학이 의거하는 형이상학과 기존의 이학들이 의거하는 형이상학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그러나 리가 선의 창출을 주재한다는 점에서는 두 도덕형이상학 간에 차이가 없다. 다만 이체기용 형이상학에서는 리가 직접 활동함으로써 천리(형이상자)의 현현(顯現)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승기기 형이상학에서는 형이상자가 기(氣)의 기(機)에 승(乘)하여 기(氣)의 운행 과정에 간여(干與)하는 가운데 선의 창출을 주재하는 차이가 있다. 당연히 리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형이상학 간의 이러한 차이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철학적 오해가 쌓여가게 되고, 지금까지 적지 않게 그래왔다.

또 「송명 심성일체(心性一體) 노선에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서는 송대에 정립된 이학(理學)을 현대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관해 총 3개의 노선이 전개되어 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 두 노선은 16세기에 조선조에서 사단칠정 논변을 거쳐 확정되었다. 퇴계성리학의 호발설(互發說)과 율곡성리학의 일도설(一途說)이 그것이다. 이 두 노선 외에 또 하나의 노선이 있었다. 이 노선에서는 사단을 포함한 본심(本心)을 최우선시함으로써 칠정이 사단의 종개념(種槪念)으로 설정된다. 이학의 여러 체계들이 이 노선에 속하는데, 이들 이학 체계들은 성과 심을 동일체로 간주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대표적 사례들로 호상학과 상산학 그리고 양명학을 들어 이 노선에서는 칠정의 중절 여부가 사단 등 본심의 자각(自覺) 여부에 좌우됨을 확인한다. 남송시대에 신유학(주자학)이 정립된 이후로 이

학은 성과 심을 동일체로 간주하는 심성일체(心性一體)의 노선과 심·성·정을 각기 독립 개념으로 설정하는 심성정 삼분(心性情 三分)의 노선으로 양분된다. 전자의 노선에서는 사단이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선심(善心)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후자의 노선에서는 정(情)에 배속된다. 그러므로 이 두 노선에서의 정 개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심성일체 노선에서는 사단 등의 본심이 우선이고, 희노애락 등의 칠정은 본심의 종개념으로 설정됨을 확인한다.

김기현에 의하면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은 이체기용 형이상학에서는 리가 직접 활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반면 이승기기 형이상학에서는 형이상자가 기(氣)의 운행 과정에 간여(干與)하는 가운데 선의 창출을 주재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연히 리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송명 심성일체(心性一體) 노선에서는 사단등의 본심이 우선이고 칠정은 본심의 종 개념으로 관계됨을 설정하고 있다.

김철호는 「악의 리는 없다-정호의 리유선악에 대한 주희의 해석-」과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정호의 선악개천리(善惡皆天理)에 대한 주희의 해석-」 등 2편의 논문을 썼다.

먼저 「악의 리는 없다-정호의 리유선악에 대한 주희의 해석-」에서는 정호의 리유선악은 주희에게 리와 악의 관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희에게서 선악개천리는 선(리)의 발현과정에서 기의 작용으로 악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로 일관되게 해석되어진 반면, 리유선악은 초년과 말년의 해석 간에 차이가 있다. 「명도논성설」에서는 리유선악을 선악개천리와 같은 의미로 보았으나, 말년의 대화에서는 리에 악

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을 염려하여 리를 부사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리유선악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적 정합성이나 교육적 의의가 아니라 '악의 리는 없다'는 주자학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정호의 선악개천리(善惡皆天理)에 대한 주희의 해석-」에서 정호는 선악개천리라는 난해한 표현을 한 바 있다. 이를 글자그대로 '선악이 모두 천리이다'라고 해석하면 리는 순수지선하다는 성리학의 기본명제와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기에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왔다. '모든 일에 선악이 있는 것은 필연적 이치'라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쉽게 비켜가는 입장도 있었지만, 주희는 '선악은 모두 천리에서 비롯된다'로 해석하면서, '악은 선에서 시작된다'거나 '악의 리는 없다'는 설명들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이원론적 설명이 차라리 깔끔하지 않느냐는 이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극악무도한 행동의 원인으로는 순선한 리가 아닌 별개의 리를 가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주희는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해석을 고수하였다. 여기에는 악 또한 모든 사물들처럼 리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문제의식과 함께 그럴 때만이 악의 교화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교육적 문제의식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철호는 「악의 리는 없다-정호의 리유선악에 대한 주희의 해석-」과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정호의 선악개천리(善惡皆天理)에 대한 주희의 해석-」 등을 교육적 문제의식으로 접근하여 교화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19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성리학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분석 비평 하였다. 2019년 중국 송대 성리학 관련 논문은 총21편으로, 2018년 49편, 2017년 66편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 전년도를 살펴보더라도 2016년 39편, 2015년 40편, 2014년 49편으로 2019년을 비교하면 역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동안 계속 꾸준히 있어왔던 학위논문이 2019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는 총 21편의 논문 중 18편을 차지한다.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와 남송의 주희, 장식, 육구연, 채침까지 총 9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북송시대에는 소옹에 관한 논문 1편, 주돈이 1편, 장재 1편, 정호 3편, 정이1편이 있으며 남송에는 주희 8편, 장식 1편 육구연 1편 채침 1편의 일반 논문이 있다. 2019년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보인다. 우선 양이 매우 많이 감소했다. 2018년에는 총 49편 중 43편이 인물에 관한 논문이다. 살펴보자면 2018년에는 소옹 4편, 주돈이 3편, 왕안석 1편, 정이 이동 1편, 호굉 1편, 주희 26편, 장식 1편, 여조겸 1편, 육구연 2편, 진덕수 1편의 논문이 있었다. 2018년에는 왕안석, 이동, 호굉, 여조겸, 진덕수 등이 보이지만 2019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8년에 보이지 않던 정호가 2019년에는 3편의 논문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2018년에는 학위논문이 6편이었는데 반해서 2019년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을 2018년과 비교하여 보

면 대체로 논문이 감소 하였으며 특히 주희의 논문이 지난해 보다 매우 적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심하게 난다. 2017년은 총 66편의 논문이 있었다. 인물별 분류를 보면 소옹 2편, 주돈이 4편, 장재 2편, 이정 2편, 호굉 4편, 주희 44편, 장식 2편, 육구연 1편, 진부량 1편, 양간 1편, 진덕수 1편, 오징 1편 등이 있었다. 또 진부량, 양간, 오징 등 새로운 인물들도 있었다. 특히 주희의 논문을 보자면 2017년에는 44편, 2018년에는 26편 2019년에는 8편이다. 갑자기 급격히 감소한 특징이 있다.

둘째,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역학, 3)심성론, 4)이기론, 5)수양론, 6)인식론, 7)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인물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세 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21편이다.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1편, 역학 2편, 심성론 3편, 이기론 4편, 수양론 3편, 인식론 3편, 기타 5편이다. 2018년과 비교해 보면 2018년에는 경학 5편, 역학 4편, 이기심성론 12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3편, 비교연구 4편, 기타 11편 등 총 49편의 논문과 비교 할 때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요 논문을 정리하고 분석 및 비평에서는 주광호, 김기현과 김철호의 논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광호는 주자철학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문을 4편이나 썼다. 그는 주자철학에서 태극론과 이기론의 맥락적 차이를 자치적 연속의 문제라고 말한다. 朱子의 격물공부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을 가지고 주자의 공부론을 연구했다. 또 공부론에서 '본체 깨닫기'에서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 맺

기'로 주자의 공부론을 확장 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화신설을 방법에서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다. 그와 같은 연구는 주자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김기현에 의하면 신유학의 형이상학 전환은 이체기용 형이상학에서는 리가 직접 활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반면 이승기기 형이상학에서는 형이상자가 기(氣)의 운행 과정에 간여(干與)하는 가운데 선의 창출을 주재하는 차이가 있다.또 송명 심성일체(心性一體) 노선에서는 사단등의 본심이 우선이고 칠정은 본심의 종 개념으로 관계됨을 설정하고 있다. 김철호는 악의 리는 없다-정호의 리유선악에 대한 주희의 해석-과 악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정호의 선악개천리(善惡皆天理)에 대한 주희의 해석-등을 교육적 문제의식으로 접근하여 교화 가 능성을 말하고 있다.

2019년 1년 동안 중국 송대 성리학 관련 논문은 총 21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한국 학계의 연구 업적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의 양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그것은 관심의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소개 되었지만 여전히 주희에 대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어 여러 영역을 점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깊이 있는 학문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송대 유학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또한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학자들과 현대 사회와 접목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이 있는 논문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